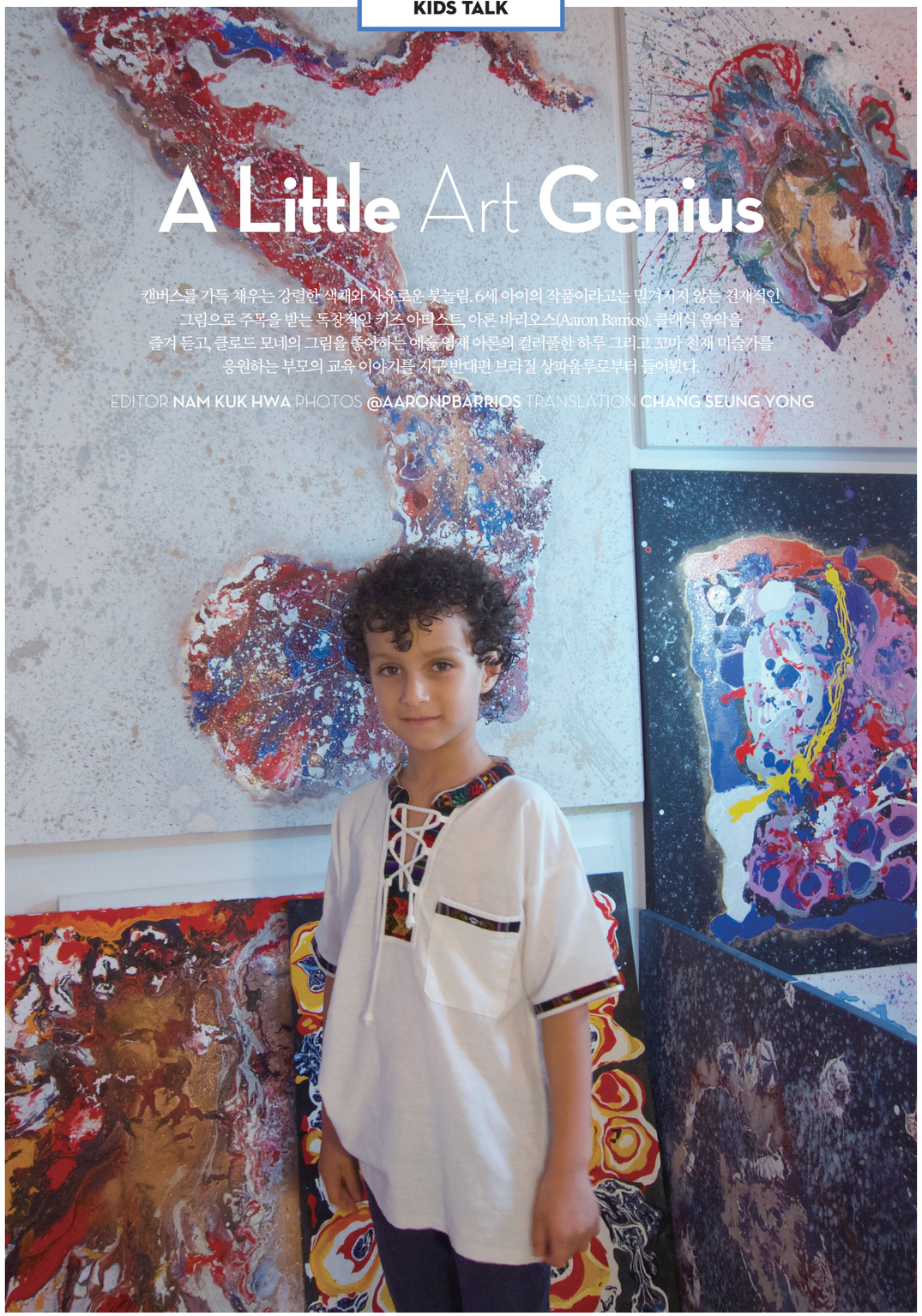

A Little Art Genius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놀림. 6세 아이의 작품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천재적인 그림으로 주목을 받는 독창적인 키즈 아티스트, 아론 바리오스(Aaron Barrios).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 클로드 모네의 그림을 좋아하는 예술 영재 아론의 컬러풀한 하루 그리고 꼬마 천재 미술가를 응원하는 부모의 교육 이야기를 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로부터 들어봤다.

EDITOR **NAM KUK HWA** PHOTOS **@AARONPBARRIOS** TRANSLATION **CHANG SEUNG YONG**

AARON'S TALK

그림 그리기와 바이올린 연주에 재능이 뛰어난 아론은 '어린이 예술가'로 알려져 있죠.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론을 보고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밀크>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론(Aaron)입니다. 나이는 여섯 살이고요. 부모님과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르투르 노게이라(Artur Nogueira)에서 살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고 방학이 끝나면 2학년에 올라가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해요. 다른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히 나무, 하늘, 강, 산 같은 자연을 보면 아주 많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무언가 떠오르면 바로 붓을 잡고요. 본 것 그대로 옮기기보다 손과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죠. 어른들은 제 그림을 보고 '추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Bones'라고 이름 붙인 그림은 저의 넘버원 보물이에요. 레드, 골드, 엘로, 퍼플, 화이트 컬러로 그렸는데 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순간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 어느 하나도 같은 그림이 없었어요.

아론의 작품은 자유로운 형태와 다양한 컬러로 대담하게 그리는 방식이 매우 흥미로워요. 주로 어떤 재료를 이용해 그리나요? 어릴 때는 도화지에 붓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그려요. 플라스틱 물병, 스패출러, 스틱, 돌 등 집 안이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도 모두 제 미술 도구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림 안에서 형태가 자주 보였군요! 좋아하는 화가가 있나요? 클로드 모네를 좋아해요. 모든 것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거든요. 자연과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다양한 사물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멋지게 표현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모네의 작품은 '인상, 해돋이(Impression, Sunrise)'예요. 두 번째 좋아하는 작품은 '일본식 다리(Jappanese Bridge)'인데, 다리 주변으로 수많은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풍경이 너무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바이올린 연주도 수준급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많은 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의 소리는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서 꼭 배우고 싶었어요. 동네에 있는 음악 교실에서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었고,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음악 교실의 웨슬리(Wesley) 선생님처럼 멋진 연주를 하고 싶어요.

주로 어떤 음악을 연주해요? 또 좋아하는 음악이나 뮤지션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은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개럿(David Garret), 클래식을 연주하는 피아노 가이즈(Piano Guys)도 좋아해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곡은 곧 멋지게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이에요. 주로 스즈키 교본으로 레슨을 받는데,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기도 해요. 클래식 음악이나 대중가요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림과 바이올린 외에 무엇을 좋아하나요? 장난감 자동차와 레고 만들기,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오전에 학교에 다녀와서 그림을 그리고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공원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론은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일단은 첼로를 무지 갖고 싶어요. 데이비드 개럿의 콘서트도 보러 가고 싶고요. 모네처럼 10m 크기의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려보고도 싶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 다음에 한국에 방문하면 우리 꼭 만나요!

MOM'S TALK

아론의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론의 엄마 로즈 프로엔카 바리오스(Rose Proenca Barrios)입니다. 원래는 생물학자였지만 아론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를 키우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교육하는 데 제 시간을 온전히 써보고자 지금은 휴직 중이에요. 아론의 아빠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아론의 인스타그램은 점점 인기예요. SNS로 아론의 일상을 기록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처음 아론이 브라질에서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죠. 2015년에 오픈해서 엄마인 제가 관리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통 미술 또는 음악 한 가지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론은 다방면으로 모두 잘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아론은 어릴 때부터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었어요.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음악 교실에 데리고 가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를 경험하게 했는데, 연주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조용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성향도 있어요. 언제나 많은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좋아해요. 보통 아기들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론은 아빠가 만들어준 형형색색의 종이 피규어(Origami Figure) 같은 복잡한 물건들을 더 좋아했어요. 말을 못하는 아기 시절에는 손에 쥐어준 색연필과 종이만으로 남다른 그림을 그렸죠. 9개월쯤 되었을 때는 집 앞을 지나가는 차들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각각 구분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아론의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있나요? 지금 사는 곳에 '프로제투 헤트레타(Projeto Retreta)'라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음악 교육과 함께 무료로 오케스트라에 있는 어떤 악기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역의 문화 혜택이에요. 덕분에 아론은 한 살이 되기 전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악기를 다뤄볼 수 있었고 다섯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론뿐 아니라 저와 남편까지 온 가족이 음악 공부를 같이 해요. 저는 클라리넷과 더블 베이스를, 남편은 첼로를 배워요. 반면 미술은 34개월 때쯤부터 캔버스를 사준 것 외에 어떤 교육도 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자유롭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할 뿐이에요. 아론 스스로 미술을 더 알고 싶고, 계속 하고 싶어 하면 언제든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는 아론은 어떤 아이인가요?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우 사교적이고 친구들도 많아요. 호기심도 왕성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두려움이 없고 개구쟁이죠.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단력이 강한 편이에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생기면 생각하던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더라고요.

한국도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 중 하나예요. 아이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거나 키워주기 위한 노하우 또는 교육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거나 계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거나 나무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저절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보이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무조건 격려와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떤 것에 특별한 재능이나 흥미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답니다. 부모들은 종종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른들의 잣대로 보고 제재나 훈육을 하곤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빈 종이와 같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어떤 악보가 쓰일지는 부모의 역할에 달려 있죠.

미술이나 음악 외에 평소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가능한 한 아이를 TV나 컴퓨터 게임처럼 많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요. 가공된 정보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신 책을 읽게 하거나 태양계, 동식물들을 느끼도록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요. 삶의 다양한 면에서 아이의 호기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또 아론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저는 직장을 휴직했고 남편은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론의 육아를 많이 도와줘요.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부모가 옆에 있어서인지 아론은 감정적으로 평온하면서도 스스로 하는 일에 자신감이 넘쳐요. 예술을 좋아하는 아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아론이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그림 'Bones'.

여섯 살 아론은 벌써 전시를 2회나 연 아티스트예요! 2년 전 아론의 첫 번째 전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론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무척 의미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아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놀라고 신기해했어요. 뿌듯하고 기뻤어요. 도시 지역 신문에서 '올해의 새로운 발견(Revelation) 상'도 받았어요. 세상 밖으로 나온 아론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지난해에는 상파울루에서 개인전을 열었고요.

좋은 일도 함께한 개인전이었죠? 미술관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전시 중 하나였어요. 많은 로컬 예술가들과 미술 선생님,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아론의 작품을 보러 발걸음을 했어요. 전시한 작품 중 한 가지가 경매되었고 수익은 암 환자들을 위한 병원에 기부했어요. 가족에게 뜻깊은 경험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론이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몇몇 학교에서는 단체로 전시회를 관람하러 왔는데, 또래 친구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어요.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오는 2월 22일부터 캄피나스에서 아론의 개인전이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이에요. 5월에는 상파울루 아르투르 노게이라에서 다른 예술가와 함께 또 다른 전시회를 열 예정이고요. 만약 다른 도시나 나라에서 아론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할 거예요. 물론 아론이 동의한다면 말이죠.